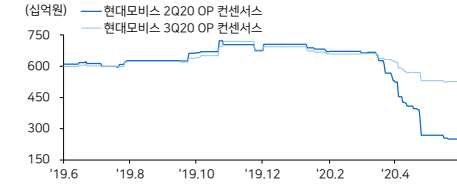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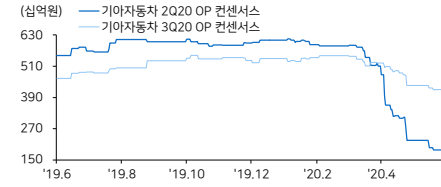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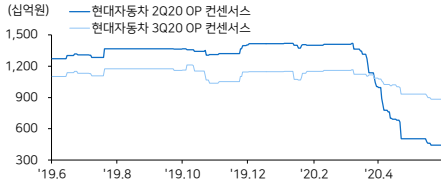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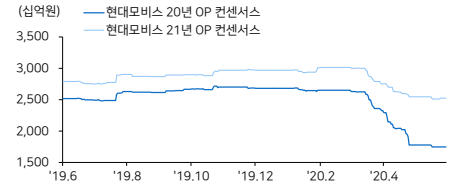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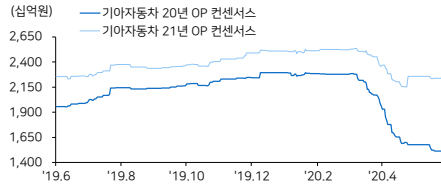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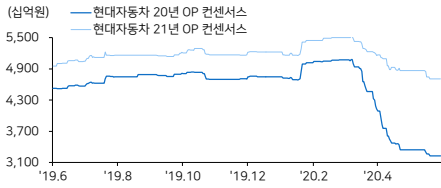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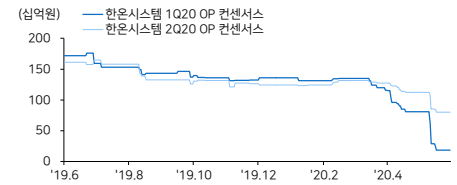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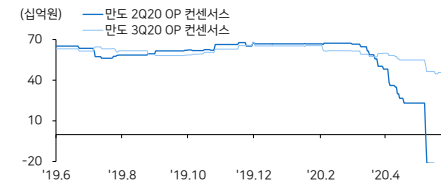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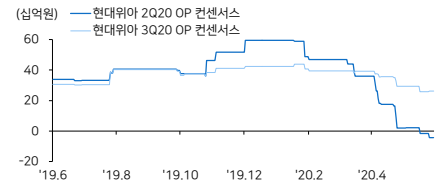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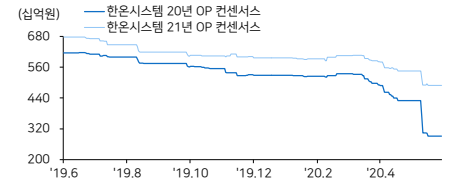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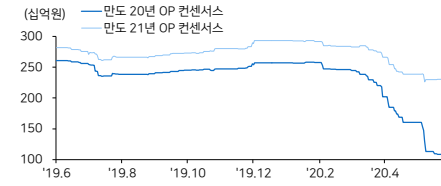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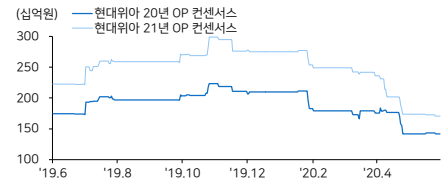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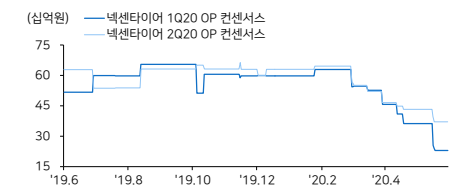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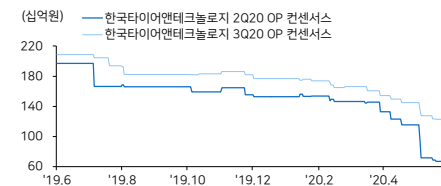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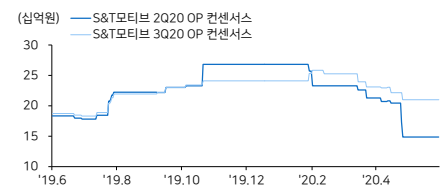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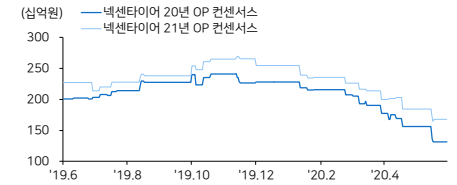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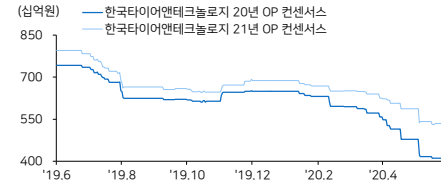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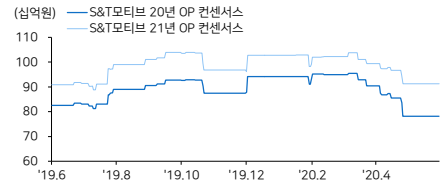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기아차 SUV 판매 호조에 美 시장 5월 판매량 선방 (서울경제)

현대·기아차의 5월 미국 판매량이 SUV 판매량 증가세를 등에 업고 회복세에 접어들. 특히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이 33%가량 하락한데 반해 현대·기아차의 낙폭은 18.5%에 그쳐 빠른 판매량 반등을 보인다. 분석. <https://bit.ly/3g5s2K0>

반등나선 인도, 5월 신차 판매량 약3만7천대... 현대기아차는 8,500여대 판매 (M오투데이리)

4월 코로나19여파로 단 1대도 기록하지 못했던 인도 시장이 지난달 4만대 가까이 기록하며 반등에 나선. 인도의 5월 신차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84.5% 감소한 3만6,576대로 집계. 현대차는 브랜드별 판매순위에서 2위 차지. <https://bit.ly/2XVvewo>

현대차, 국내 첫 상용차 수소충전소 개소 (아이뉴스24)

현대자동차가 민간협력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상용차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 현대차는 3일 전주 공장(전북 원주군 소재)에서 국내 최초 '상용차 수소충전소' 개소식을 진행. <https://bit.ly/2Mrp5xM>

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9개월 연속 감소' (중소기업뉴스)

2020년 4월에 판매된 중국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 8월부터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등도 일부 영향을 주면서 순수전기차(BEV) 수요가 크게 감소. <https://bit.ly/3eGNpww>

현대차, '더 뉴 쉐타페' 디자인 공개... 이달 출시 (전자신문)

현대자동차가 3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쉐타페'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 현대차에 따르면 더 뉴 쉐타페는 기존 쉐타페의 세련된 이미지를 이어받으면서 더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는 디자인으로 바뀔. <https://www.etnews.com/20200603000150>

현대차, 러시아 안택스, 자율주행차 테스트 위해 신포나타 100대 투입 (M오투데이리)

현대차와 러시아 자율주행업체 안택스 NV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두 배로 늘려 미국 디트로이트 등에서 본격적인 테스트에 나선. 이를 위해 안택스 NV는 현대차의 신포나타 100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https://bit.ly/2Zy5DA7>

美 자동차 시장, 5월 판매량 감소 불구 회복 조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증가세로 돌아섬. 판매량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등 실적 개선으로 공정 새가동에 들어간 업체들은 여름 휴무를 단축해 생산에 나설 예정. <https://bit.ly/2Bn3Uzn>

자동차생산 현지화 거세질 듯 (내일신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산업은 현지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 코트라는 미국 자동차전문 컨설팅회사 AFS의 조 맥케이브 대표가 "제품이 판매될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했다고 밝힘. <https://bit.ly/36Y117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